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해양·관광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

□ 창선면 관광 발전 방안

1. 동대만 생태공원 일부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

가. 동대만 생태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일부 구간을 확보해 두었다가 창선 면민들에게 제공(임대 또는 분양등)해서 각종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방안 강구

2. 동대만을 중심으로 창선면 관광 인프라 개발 제안

가. 창선면 관광 개발의 중심지를 동대만 간이역 부근으로 하고 동대만과 접해있는 마을은 물론 인근의 고사리밭, 공룡발자국, 연곡 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장포, 적량까지도 연계할 수 있다고 봄.

나. 동대만의 특이한 해안선, 갯벌, 잘피군락지, 갈대습지(수산쪽, 오룡쪽) 등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동대만을 중심으로 창선면 관광 인프라 개발을 제안함.

3. 적량마을 고을성터(적량성) 복원사업 추진 건의

가. 문화적 가치가 높고 전국에서도 보기 귀한 고을성터가 창선면 적량마을에 남아 있어 문화재 등록을 통해 복원하려고 하였으나 확실한 자료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음.

나. 남해군에서 학예사 지원과 고을성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적량 마을 고을성의 문화재 등록 및 복원사업 추진을 건의함.

4. 조선시대 말 방목장이라는 창선의 역사적 배경 스토리텔링 제안

가. 조선시대 군사용 말을 방목했던 곳으로 대마도 정벌 선발대의 출발지라는 창선의 역사적 배경을 발굴하여 남해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현재에 계승하고 연계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남해군승마장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람.